

資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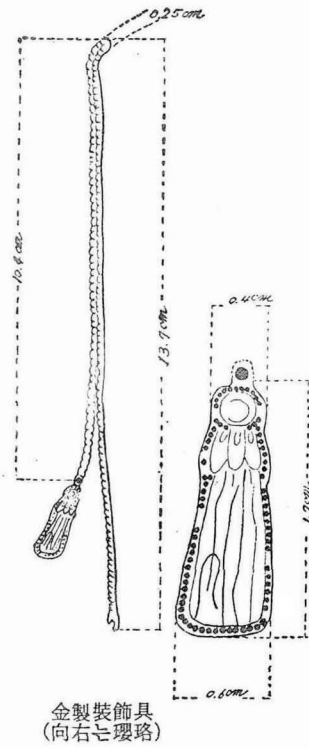
이 소개한 菩薩像의 무늬와 유사한 듯하다.
 朝鮮古蹟圖譜九의 P, 一二五에 있는 陽刻小童探蓮文護符容器에
 조각된 動物像과 매우 비슷하다.

百濟 金剛寺址出土 金製 裝飾具

金 永 培

扶餘郡 恩山面 琴谷里에 所在한 金剛寺址 發掘時에 그 部落에 居住하
 는 趙成一氏가 農地耕作中 發見하여 保管中에 있는 것을 國立博物館 尹
 武炳 學藝官과 金正基 考古課長이 着眼하여 一九六六年 四月 十八日에
 扶餘博物館에 收藏한 것으로서 百濟時代 金工品의 纖細한 鎊리그리細工
 의 手法을 보여 주는 遺品이므로 簡單히 적어 두기로 한다.

이 裝飾具는 純金을 細棒形으로 두드려 느린 뒤에 中間에 끝을 내서
 雙陵으로 區分을 짓고 陵上에는 連珠文을 押印으로 連續시키었는데 한
 쪽이 길고 또한 쪽이若干 짧게 되었다. 그리고 그 끝에는 金片에다가
 粒子和 細線을 부치어서 瓔珞片模樣을 만들어서 하나씩 부치었는데 現
 在는 긴 部分의 것은 缺失되고 짧은 끝에 달리었던 것만이 남아 있다.
 (彫鏤文樣은 圖面參照) 用途에 있어서 女人의 頭飾으로 使用되었던



第七卷 第五號 通卷 七十號

釵의 一種이 아닌가 하는 見解가 있는데 裝身具의 性格을 가진 것은 事
 實이다. 그러나 長時間 考察하는 동안에 拙見이나 妄言을 戒을 지켜 보
 면 頭飾品으로 가정을 한다면 棒端에 달려있는 瓔珞片이 서로 고리를 만
 들어서 달아가고 搖飾의 風致를 내서 달랑달랑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
 인데 瓔珞片 頭部와 棒端에 各其 구멍을 뚫어가지고 못을 박아 양쪽에
 서 맞조짐을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點과 棒身에는 連珠
 文을 押印하였기 때문에 머리에 꽂을려면 머리털에 걸리어서 不便한 點
 을 들 수 있다. 그리하여 이것은 或是 菩薩像에 附着되었던 裝飾具가
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雙陵線으로 區分하여 連珠文을 彫
 鏤한 것은 衣帶雙線을 表現하고 끝은 두 갈래로 벌리어서 瓔珞片같은 것
 을 달아 놓은 것은 衣帶끝에 다른 「수술」을 構想한 것이 아닌가 한다.
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拙見이요 斷定은 避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 깊
 은 考察이 있어야 할 것이다. (實測値는 圖面參照)

考古美術 뉴스

◎ 王宮里 五層塔基發掘

冬期로 中斷되었던 이 工事は 基壇新造石材가 四月十日 現場到着되므로써 再
 開되었다. (이 石材는 彌勒山에서 採取) 治材進行과 더불어 二十一日부터는 塔
 基北方의 發掘調査가着手되었는바 二十二日에는 數石列과 夫瓦一列(東西)이
 發見되었다. (調査員은 黃壽永 洪思俊 申榮勳)

◎ 益山望城面에서 百濟大甕發見

四月一日 全北 益山郡 望城面 長善里(新里)山二九〇에서 宋在沃(農26)에 의
 하여 發見되었는데 地下一尺에 南北으로 누어 있었으며 內底에는 圓底壺片이 있
 었을 뿐이다. 高三尺 肩部徑一尺 口徑一·五九尺 淡黑色으로 無紋이며 底面
 은 圓尖. 此外에 格子文大壺一 無紋大壺가 同時發見되었으나 大破되었으며 百
 濟平瓦片도 附近에서 收拾되었다. 이에 대하여 四月十九日 洪思俊 黃壽永 兩
 氏의 現場調査가 있었다.